

웨스트햄 원정서 '토틀넘 400경기 클럽' 가입...비유럽 선수 최초

손흥민, 토틀넘 새 역사를 썼다

역대 14번째 EPL 출범 후엔 요리스·케인 이어 3번째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토틀넘 홉스퍼에서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다. 바로 토틀넘 소속 비유럽 선수 최초의 '400경기 클럽' 가입이다. 손흥민은 3월 영국 런던의 런던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31라운드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1-1 무승부)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격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웨스트햄전은 손흥민이 토틀넘 유니폼을 입고 치른 400번째 경기였다. 토틀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을 기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올렸다. 손흥민은 1882년 창단한 토틀넘 역사를 통틀어 '400경기 클럽'에 가입한 14번째 선수다. 이 부문 최고는 1969년부터 1986년까지 토틀넘에서 활약한 스티브 페리먼(854경기)이다. 역시 10년 이상 토틀넘에 몸담은 센터백 게리 마버트(1982-1998년)가 2위(611경기)고, 1960-1970년대에 펄 벅(1964-1977년·590경기)과 시릴 놀스(1964-1975년)가 각각 3, 4위다.

이 목록에서 1992년 EPL이 창설된 이후에 토틀넘에 입단한 선수들만 추리면 손흥민은 3위까지 오른다. 1, 2위 역시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인물들이다. 손흥민 이전에 토틀넘 주장으로 활약했던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스(현 LA FC·2012-2023년·447경기)가 이 부문 1위다. 역대로 보면 7위다. 손흥민과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하다가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떠난 특급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2011-2023년·435경기)이 그 뒤를 잇는다. 역대로 보면 10위다. 케인은 2015년 입단한 손흥민과 동고동락하며 EPL 역대 최다 합작 골(47골)의 진기록을 쓰기도 했다. 손흥민보다 역대 출전 순위에서 한 계단 위에 있는 선수는 1955년부터 1955년까지 뤼 수비수 모리스 노먼(139·411경기)이다. 손흥민이 올 시즌 리그에서 8경기를 남겨둔 만큼, 깜짝 이적이 없다면 다음 시즌에는 노먼을 비롯해 12위 존 프랫(1969-1980년·415경기), 11위 필 빌(1963-1975년·420경기)의 기록은 무난하게 따



토틀넘 홉스퍼가 손흥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400경기 출전을 기념해 구단 SNS에 올린 이미지. (토틀넘 홉스퍼 인스타그램 캡처)

라잡을 수 있다. 케인의 기록도 충분히 사정권이다. '400경기 클럽'에 가입한 14명 가운데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온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골잡이 손흥민은 구단 통산 득점 부문에서는 순위가 훨씬 높다. 30라운드 루턴 타운과 홈 경기에서 2-1을 만드는 결승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출신 공격수 클리프 존스(159골)를 넘어 이 부문 5위(100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KIA, 찰팬 릴레이 승리기원 시구

6일 배헤지 아나운서·7일 챔필 첫 경기일 출생 어린이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6-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타이거즈 '찰팬'을 초청해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6일에는 배헤지 아나운서가 시구자로 나서 KIA의 승리를 기원한다.

광주 출신인 배헤지 아나운서는 여러 차례 팬심을 드러낸 타이거즈 찰팬으로 KBS 기상캐스터,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아나운서, SBS 예능 '몰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는 등 현재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배 아나운서는 "어릴 때 가족들과 무등경기장에서 KIA 타이거즈를 보며 응원을 했는데, 고향 광주에서 KIA



배헤지 아나운서 (라이크비 제공)

타이거즈의 시구를 하게 돼 큰 영광이다. 소원을 이룬 기분이라 정말 기쁘고, 타이거즈 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응원하며 12번째 우승을 위한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이어 7일 경기에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첫 경기가 열린 2014년 4월 1일에 태어난 정윤지(10, 서림초), 조이찬(10, 태봉초) 어린이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다. /주홍철 기자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예선을 겸해 열린 제11회 광주세인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송정동초 선수단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송정동초, 소년체전 광주대표

광주세인트럴병원장배 초등야구 우승...김민욱 대회 MVP 선정

송정동초가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야구 광주대표로 확정됐다.

송정동초는 지난 2일 광주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예선 겸 제11회 광주세인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대성초를 6대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달 25일부터 광주 지역 7개 초등학교(A조: 서림초, 서석초, 학강초, 송정동초·B조: 대성초, 수창초, 화정초)가 참가해 조별리그로 치른 이번 대회에서 송정동초는 학강초를 5대0, 서석초를 4대2, 서림초를 7대0(6회 풀드게

임)으로 꺾고 A조 1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수창초를 5대4로 제압한 송정동초는 결승에서 대성초에 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팀 송정동초는 오는 5월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에 중등부 동성중과 함께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송정동초 김민욱은 대회 최우수선수 상에 선정됐고, 송정동초 고윤성과 이태균은 각각 우수투수상과 타격상을 수상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청 우수팀 단체사진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우수팀, 전국우수선수권 금4·동3

전남도청 우수팀이 올해 첫 대회인 제36회 회장배 전국우수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청 우수팀은 지난 1일 충북 보은군 국민체육센터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메달 획득 선수만 참가할 수 있는 2024년 국가대표선발전과 회장배 전국대회로 나뉘어 열렸다.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한 주장 윤웅진과 김민수, 장민규는 모두 동메달을 차지했다.

윤웅진은 산타-56kg급 4강에서 이경민(경남)을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갔으

나 경기 중 장경이 부상으로 기권, 동메달에 머물렀다.

산타-65kg급의 김민수는 8강에서 박세호(대전시)를 2-0으로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입은 무릎 부상 여파가 가시지 않아 부상 기권했다.

투로 태극권전능에 출전한 장민규는 태극권에서 9.70의 높은 점수를 획득, 3위로 출발한 뒤 태극검에서 역전을 노렸으나 동메달에 그쳤다.

회장배 대회 투로경기에 참가한 박정영(장권전능)은 장권, 도술, 곤술 개인 종목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산타 종목에 출전한 김창현은 80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윤웅진은 산타-56kg급 4강에서 이경민(경남)을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갔으

“올림픽 도전, 확신없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전설급 현역' 신지애가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신지애는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가 내게는 에너지 드링크다. 힘을 불끈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오랫동안 투어를 뛰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올림픽이라는 목표 의식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세계랭킹에서 15위 이내에서 들어가 파리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신지애는 “확신이 없었다면 시작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 대회에 나서고 있다”며 파리 올림픽 출전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다.

양희영과 올림픽 출전 경쟁에 대해서는 “함께 싸우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같이 올림픽에 나가면 좋다. 서로 응원하면서 뛰고 있다”면서 “어떤 결과라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지애는 올림픽에 나가려면 세계랭킹을 15위 안으로 끌어올리는 게 급

신지애, KLPGA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앞서 올림픽 출전 의지 재확인



3일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에서 열린 '두산 We've 챔피언십' 공식 기자회견에서 박결, 임희정, 신지애, 이예원, 김민범, 유현조(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KLPGA 제공)

선무다. 세계랭킹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유리한 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 출전이다. 신지애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와 5월 31일 개막하는 US여자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신지애는 “그 사이에 일본에서 될 계획이지만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도 세계랭킹 포인트를 따낼 기회에 허투루 경기할 생각이 없다. 2008년 이곳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했던 추억도 또렷하다. 신지애는

“한국에서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지애는 또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 몸이 잘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지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마흔살은 은 넘기 힘들 것 같다”고 애절한 은퇴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투어 복귀 윤이나, 방신실·황유민과 장타대결

1·2라운드 동반 플레이

21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복귀하는 윤이나가 화끈한 장타대결의 무대에 올랐다.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윤이나와 방신실, 황유민을 1, 2라운드에서 함께 경기하도록 티타임을 편성했다

고 3일 밝혔다. 셋은 4일 낮 12시15분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파72) 1번 홀에서 티오프한다. 셋은 KLPGA 투어에서는 손꼽는 장타자다. 윤이나는 2022년 신인 때 압도적인 장타력으로 주목받았다. 힘이 넘치는 스윙에다 사뭇 공격적인 플레이로 인기를 끌었다.

방신실은 지난해 장타 1위에 올랐다. 큰 키에서 뿜어나오는 커다란 스윙 아크로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를 평평터트린 신인 돌풍의 주역이 됐다. 방신실에 이어 장타 2위에 오른 황유민은 작은 체구지만 빠르고 강한 스윙으로 장타를 만들어냈다. 어떤 선수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 지난해 KLPGA 투어 흥행을 이

끈 선수가운데 한명이다.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은 윤이나가 오구 플레이로 출장 금지 징계가 풀린 뒤 처음 출전하는 대회다. 윤이나가 KLPGA 투어 대회에 나서는 것은 2022년 7월 호남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윤이나의 복귀전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 이 대회는 KLPGA 투어의 대표적인 장타자 세 명을 같은 조에 편성해 확실한 흥행 카드로 내세웠다. /연합뉴스